나주시, 보이지 않는 땅속까지 살핀다…지반침하 예방 총력

지반침하 위험 사전 차단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나주시가 땅속 빈 공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요소까지 선제적으로 살피며 지반침하 예방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상·하수도 관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속 빈 공간인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반탐사는 도로를 직접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전자기파를 지하로 투과해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상하수도 관로 주변은 누수나 토사 유실 등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동은 지표면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방치할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는 지난해 금천면과 빛가람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해 총 5개소의 공동을 확인했다. 확인된 구간 가운데 일부는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구간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탐사 범위를 확대해 송월동과 금남동, 성북동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총 19개소의 공동 의심 구간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통해 실제 공동 여부와 규모, 깊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동으로 최종 확인되는 구간은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군민과 함께하는 '21세기 담양포럼' 개최

담양군이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와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며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담양군은 지난 3일 닉 코엘로(Nick Coelho) 린우드시의회 의장 일행이 담양군을 방문해 양 도시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닉 코엘로 린우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명이 참여했으며, 방문단은 담양군청을 찾아 군 관계자들과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담양군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담양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살펴봤다. /강종연 기자

화순팜, 추석맞이 달달한 이벤트 실시

전남 화순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화순팜에서 "추석맞이 달달한" 이벤트를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할인 이벤트, 댓글 이벤트, 구매 후기 이벤트로 구성된다.

할인 이벤트로 화순팜 회원에게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 원)과 10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10%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 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1,000명)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추석맞이 달달한 소원 댓글 작성(10명)하거나 화순팜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정성스러운 구매 후기(10명)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화순팜 적립금 20,000원을 지급한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하반기 찰보리 문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찰보리 디저트 클래스 과정, SCA 국제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영광군, 찰보리 문화 아카데미 모집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지역 특화작목인 찰보리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인 「2026년 하반기 찰보리 문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9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군남면 천년로 9069-7)에서 운영되며, 군민들에게 찰보리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 교육은 '찰보리 디저트 클래스 과정(오전, 오후반)'과 'SCA 국제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찰보리 디저트 클래스 과정은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32명(반별 16명)을 모집한다. 찰보리와 영광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빵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수강료는 4만원이다.

SCA 국제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9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16명을 모집한다. SCA 국제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위한 커피 실습과 시험 대비 교육을 진행하며, 수강료는 8만원이고 시험·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다.

영광군은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활용 가치를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의 배움과 성장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 기자

장성군, 전남광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준비 총력

12~14일 종목별 경기장서 개최…개회식 에일리·포레스텔라 공연

장성군이 오는 12~14일 열리는 제3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보고회를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개행사 연출계획을 비롯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분야별 보완대책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준비 보고를 시작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 △교통 및 주차장 대책 등 부서별로 전담업무를 공유했다.

군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정례조회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상황을 알리고, 성공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성군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동호인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숙박 및 음식점 친절 및 위생 △주요 관광지 정비 △교통 및 안전대책 마련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생활체육대축전을 장성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22개 시군 동호인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장성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영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체육대축전은 광주전남 22개 시군 6783명의 동호인 선수단이 참여한다. 검도, 게이트볼, 야구 등 23개 정식종목과 민속종목인 줄다리기까지 총 24개 종목의 시합이 펼쳐진다.

제3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 /장성군 제공

생활체육대축전 이후인 10월 15일에는 16일까지 이틀간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장성지역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